

#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수학 보고서

성명		학 번	
학과/전공	간호학과	파견대학	Budapest Metropolitan University
파견기간	2025년 2학기	파견국가	헝가리

본 자료는 다음 참가자들에게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문항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작성한 것을 복사하거나, **성익이 결여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교환학생 파견 인정, 학점 이관 등의 불이익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 표현 등 자유롭게 친구 및 후배들에게 이야기 하듯, 모든 항목에 **사진**을 곁들여 작성하고 **글로벌교류센터 담당자 이메일로 (iao44@hallym.ac.kr)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및 이메일 제목을 “**교환학생 보고서\_파견대학명\_학생명\_학번\_파견학기**”로 하여 송부  
※마감일: 2025. 12. 19. 14:00 KST

## 1. 교환학생 현지대학 신청서 작성(0.5장~1장)

- ① **현지대학 교환학생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제출한) 서류**
- ② **현지대학 교환학생 신청 프로세스에 대해 작성**
- ③ **준비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부분**

현지대학 교환학생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했다. 먼저 현지대학 교환학생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는 **어학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토익 시험 점수, 여권 사본, 그리고 Learning Agreement**가 있었다. Learning Agreement는 파견 대학에서 어떤 과목들을 수강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여 제출하는 서류로, 교환학생 신청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였다.

현지대학 교환학생 신청 프로세스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본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파견 대학에서 이메일로 링크가 왔다. 링크에서 요구하는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이를 준비하였다.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링크에 서류들을 업로드 하는 방식을 통해 현지대학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현지대학의 검토를 거쳐 합격 여부를 통보받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Learning Agreement 작성이 필수적이었는데, 이는 향후 학점 인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신중하게 작성해야 했다.

신청서를 준비하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학점 환산과 수강 과목 선택**이었다. Learning Agreement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파견 대학에서 수강할 과목과 해당 과목이 본교에서 어떤 전공 또는 교양 학점으로 인정되는지를 고려해야 했다. 그러나 학과에 문의한 결과, 학점 환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교환학생을 다녀온 이후에야 최종적으로 안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행히 이전에 교환학생을 다녀온 선배들의 사례가 있어, 이를 참고하여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다.

또한 파견 대학에서 제공한 수강 과목 리스트에는 과목명과 간단한 설명만 있을 뿐, **요일과 시간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Learning Agreement를 처음 작성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수강신청을 하기 전까지도 정확한 수업 스케줄을 알 수 없었고, 수강신청 플랫폼 역시 오류가 잦아 과목 정보를 확인하는 데 불편함이 많았다. 이로 인해 과목 간 시간 충돌 여부를 고려하기 어려웠고,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수강 신청 정정 기간에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Study Programme at the Receiving Institution**  
**Mobility type: Semester(s)**

Table A	Component code (if any)	Component title at the Receiving Institution (as indicated in the course catalogue)	Semester (e.g. autumn/spring; term)	Number of ECTS credits (or equivalent) to be awarded by the Receiving Institution upon successful completion
	BN-INTROE-04-EA	International Protocol and Etiquette	autumn	4
	BN-ECONOC-05-EA	Economic Communication	autumn	5
	BN-JADUCU-03-GY	Japanese Business and Culture	autumn	3
	BN-BUSNEN-05-GY	Business English	autumn	5
	BN-SOSTP1-06-GY	Social Studies I. Project	autumn	6
				Total: 23

Web link to the course catalogue at the Receiving Institution describing the learning outcomes: [web link to the relevant information]

**2. 비자 및 항공 (0.5~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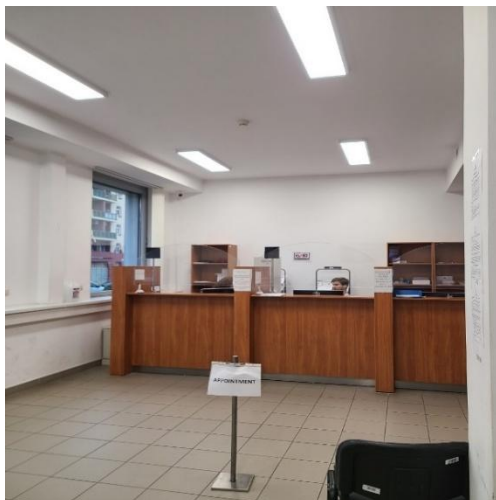
① 파견국가 비자 취득 방법 ② 비자 취득에 걸리는 시간 ③ 비자 취득 시 유의사항

헝가리로 교환학생을 갈 때는 일반적인 비자를 따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헝가리 입국 후 거주증 (Residence Permit)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90일 이하 단기 체류에 대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지만,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학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입국 후 빠른 시일 내에 거주증을 신청해야 한다.

거주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헝가리에 도착한 후, **'Enter Hungary'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거주증 신청을 사전에 진행해야 한다.** 'Enter Hungary'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여권 사본, 은행 잔고 증명서, 건강보험 증명서, 숙소 관련 서류** 등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업로드하였다. 모든 기본 정보 입력과 서류 제출은 온라인으로 먼저 완료해야 했으며, 이 과정이 끝난 후에 이민국 방문이 가능했다.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뒤에는 주변 이민국을 검색해 이민국에 직접 방문하여 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이민국에서는 여권 원본을 제시하고 대기 번호표를 받아 순서를 기다린 후, 창구에 들어가 **교환학생으로 입국했음을 설명**하였다. 이후 거주증에 사용될 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를 현장에서 진행하고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민국 방문은 대기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아침 일찍 방문하는 것을 권장한다.** 오전 8시 이전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이 길었으며, 전체 절차에 **약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또한 거주증은 이민국 방문 당일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민국에서 학교로 우편을 발송해 학교에서 수령**하는 방식이었다. 실제로 거주증을 수령하기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 3. 수업 정보 (1장)

#### ① 수강 과목, 수업 내용 ② 수업의 분위기 ③ 수업강도 및 어학 능력 요구도

파견 학기 동안 총 5과목을 수강하였다. 먼저 **The (Geo)politics of Digital Technologies** 수업은 디지털 기술이 개인의 삶과 공적 영역에 미치는 윤리적·정치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수업에서는 기술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방식들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기술 사례를 통해 윤리적 문제를 평가하며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훈련을 하였다.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rough Central European Film (1957–2018)** 수업에서는 헝가리를 중심으로 독일, 루마니아, 구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등 중부 유럽 국가들의 영화를 감상하며 문화 간 소통을 다루었다. 영화를 통해 민감한 사회적 이슈를 인식하고, 몸짓 언어를 관찰·해석하며 자신의 문화와 타 문화를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Advanced English**는 쓰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다. 최신 국제 이슈와 비즈니스 관련 주제를 다루며, 유창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한 어휘와 표현을 학습하였다.

**Between East and West** 수업에서는 동서양의 개념을 지리적·상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유럽의 역사적 분기점(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냉전, 1989년 체제 전환 등)을 중심으로 유럽과 중앙유럽의 정체성을 탐구하였다.

마지막으로 **Creative Communication I**. 수업은 의사소통 방식이 문제 형성과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스토리텔링과 설득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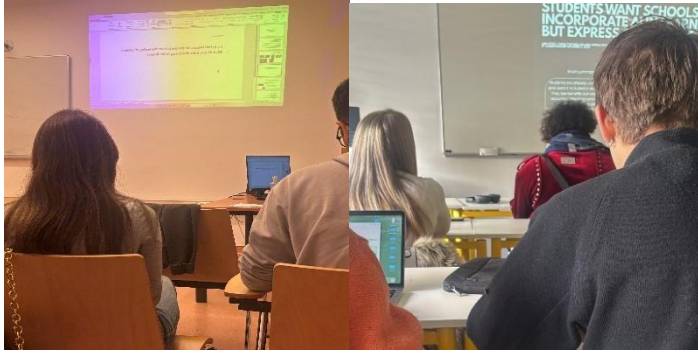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수업 분위기는 매우 자유롭고 개방적이었다. 대부분의 수업에서 학생 참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었으며, 발표나 토론, 옆 사람과의 소규모 대화 활동이 자주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영어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하지만, 같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나 교수님 모두 모든 의견을 존중하고 틀리는 것에 개의치 않는 분위기 덕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점차 내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었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다 보니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도 각자의 문화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전혀 다른 시각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다양성은 토론의 깊이를 더해 주었고, 수업을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게 만들었다.

수업 강도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편이었으며, 수업을 따라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다만 토론과 발표 중심 수업이 많아 기본적인 영어 듣기·말하기 능력은 필수적이었다. 교수님은 언어 수준을 고려해 수업을 진행하셨고, 실수를 허용하는 분위기 덕분에 부담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놓친 부분이나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수업 끝나고 교수님께 여쭙보거나 옆에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학업적인 부담보다는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하게 요구되는 수업들이었다. 내가 수강한 과목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처럼 큰 시험이 있는 과목들은 아니었고, 에세이를 쓰거나 발표로 평가를 대체하는 방식이었다. 친구들과 같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기도 해서 수업 시간 외에 따로 만나서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다.

**The (Geo)politics of Digital Technologies**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 짧은 쪽지 시험을 3번 봤었다. 이렇듯 평가에 있어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 4. 캠퍼스 생활 정보 (1~2장)

① 기숙사, 도서관, 식당 등의 학교의 전반적인 시설 및 서비스, ② 필드트립, 학생 활동 등 참여한 활동 정보.

##### ③ 식당, 쇼핑, 주변 관광 등 학교 인근 지역 정보

파견교에는 자체 기숙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에서 연계해 준 사설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다. 해당 기숙사는 전반적으로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지내는 데 큰 불편함은 없었다. 특히 파견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서 온 교환학생들도 함께 거주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던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기숙사 생활을 함께하는 학생들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일상적인 교류를 통해 교환학생 생활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졌다.

학교 내 카페테리아 또한 잘 갖추어져 있었다. 헝가리 전통 음식부터 비교적 가벼운 식사까지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었으며, 커피나 샌드위치, 간단한 스낵류도 구매할 수 있어 수업 전후로 자주 이용하였다. 카페테리아 공간이 넓어 조별 과제나 팀 활동 시에도 자주 활용되었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여 대화를 나누는 장소로 기능하였다.

학교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었지만, 강의실과 공용 공간이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하고 전반적으로 쾌적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캠퍼스는 도심 중심부와는 다소 떨어져 있었으나, 메트로 등 대중교통과 잘 연결되어 있어 통학이나 이동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학기 중 학교에서 주관한 필드트립에도 여러 차례 참여하였다. 총 다섯 번 정도의 필드트립이 있었으며, 헝가리 내 다른 도시를 방문하거나 연말 시즌에 개장한 아이스링크장에서 스케이트를 즐기는 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수업 외적으로 헝가리의 문화와 일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학교에서 주최한 필드트립을 통해 개인적으로 방문하기 어려웠던 지역들을 비교적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었고, 다른 교환학생들과 함께 이동하며 친목을 다질 수 있었다. 학업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학생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느꼈다.

학교 인근에는 대형 쇼핑몰이 위치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매우 높았다. 쇼핑몰 내에는 다양한 식당과 카페가 있어 다음 수업을 기다리는 시간이나 수업 후 식사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실제로 수업 사이 공강 시간에 쇼핑몰에서 식사를 하거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학교 바로 앞에는 이케아(IKEA)가 위치해 있어 생활용품 구매하기에 매우 편리했다. 기숙사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초기 정착 과정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다. 비록 학교가 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지는 않았지만, 주변 상업 시설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일상 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은 거의 없었다.

종합적으로 파견교의 캠퍼스 및 주변 환경은 학업과 생활을 병행하기에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교환학생으로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 5. 홍보 (0.5장)

현지 학생에게 한림대학교 교환학생 홍보 활동

교환학생으로서 현지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하는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주로 수업 중 조별 활동이나 토론 시간, 그리고 수업 외 자유로운 대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대학교와 교환학생 제도에 대해 설명하였다.

우리 대학교의 위치, 캠퍼스 환경, 수업 방식 및 외국인 학생을 위한 지원 제도를 중심으로 소개하였으며, 특히 영어 강의 비율과 다양한 전공 선택의 폭, 교환학생을 위한 행정적 지원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실제 교환학생으로서 경험한 수업 분위기와 학교 생활을 예로 들며, 한국 대학에서의 학업 환경과 학생 문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현지 학생들은 한국의 대학 교육과 캠퍼스 생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갈 경우 수업 참여 방식이나 생활 환경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우리 대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국제적인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력적인 선택지임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비공식적인 소통 방식이었지만, 실제 학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홍보 활동이었기 때문에 현지 학생들에게 보다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환학생으로서의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학업 외적인 부분도 함께 소개하였다. 기숙사 생활, 교통 및 생활비 수준, 학생 복지 시설 등 실제로 현지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주제들을 공유함으로써 교환학생 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 대학의 활발한 학생 활동과 교내·외 문화 경험에 대해 설명하며, 단순한 학업 교류를 넘어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홍보 활동을 통해 현지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교의 국제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비록 공식적인 홍보 행사는 아니었지만, 학생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홍보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교환학생으로서 학교를 대표한다는 책임감 또한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우리 대학교에는 '생활영어'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는 점을 함께 소개하였다. 해당 과목은 한국 재학생과 우리 대학교로 온 교환학생들이 함께 수강하는 수업으로, 단순히 언어 학습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문화적 배경과 일상 경험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수업 중 토론이나 활동뿐만 아니라 수업 외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국제학생과 현지 학생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수업 구조는 교환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현지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지 학생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교가 외국인 학생을 단순히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닌, 캠퍼스 구성원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 6. 자기평가 (1~2장)

- ① 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
- ②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필요성
- ③ 파견기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해결방법

교환학생으로서 한 학기를 보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수업과 생활 전반에서 자신감을 많이 얻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영어로 의견을 말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졌지만, 교수자와 학생들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준 덕분에 점차 내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다국적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관점과 사고방식을 접할 수 있었던 경험은 매우 값졌다.

또한, 수업 외적인 생활에서도 많은 성장을 느꼈다. 기숙사에서 다른 국적을 가진 친구와 함께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기숙사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었다. 특히 기숙사에서 사귀 친구들과 함께 다른 나라를 여행한 경험도 매우 인상 깊었다.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문화와 환경을 직접 경험하고,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서로 협력하며 여행을 계획하고 즐기는 과정은 나에게 새로운 도전이자 즐거움이었다.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닌 경험 자체가 교환학생 생활을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게 만들었다.

더 나아가, 교환학생 생활을 통해 독립적인 생활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기숙사 생활, 식사 준비, 통학, 여행 계획 등 모든 일정을 스스로 관리하며 책임감을 기를 수 있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스스로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학업과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자율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현지에서의 생활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은 단순한 학문적 지식을 넘어서, 실제 국제적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할 때 매우 유용한 자산이 된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여행을 계획하며 겪은 경험은 나의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응하는 유연성과 자율성을 기르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새로운 문화와 생활 방식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었으며, 이는 향후 국제적 환경에서 일하거나 협력할 때 필수적인 역량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단순히 외국어 능력이나 학점 취득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문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격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도 폭넓게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경험임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교환학생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처음으로 영어를 사용해 의견을 발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때 느낀 부담감이었다. 처음에는 말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문법이나 표현이 틀릴까 걱정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수업 초반에는 다른 국적의 학생들이 자신감 있게 의견을 내는 모습을 보고 상대적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수업 분위기가 매우 자유롭고 교수자가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환경 덕분에, 점차 작은 의견부터 표현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들였다. 또한, 기숙사 친구나 수업 조원들과 미리 주제를 공유하고 연습하는 방법을 활용하면서 발표와 토론에 대한 자신감을 점차 키울 수 있었다. 반복적인 연습과 경험을 통해, 수업 참여 자체가 즐거워지고 영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되었다.

장보기와 생활용품 구매에서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기도 했다. 처음에는 어떤 제품을 사야 하는지, 가격과 품질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해 마트나 시장을 돌아다니는 데 시간이 걸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을 받거나, 현지 마트 앱과 정보를 참고하며 조금씩 익숙해졌다.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장보는 과정이 점점 수월해졌고, 이제는 필요한 물품을 효율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었다.

생활 리듬을 맞추는 문제도 처음에는 어려웠다. 수업 시간, 식사, 필드트립, 친구들과의 활동 일정 등을 모두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일정을 꼼꼼히 계획하고, 필요할 때는 친구들과 상의하며 조율하였다. 또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거나 주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계획 능력과 협력 능력을 배우게 되었다. 교통 지연, 날씨 변화, 일정 변경 등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적응하는 경험은,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점점 스스로를 믿고 판단하는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어려움도 있었다. 헝가리의 생활 방식, 식습관, 공공예절 등 한국과 다른 점들을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를 직접 경험하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국제적 환경에서 협력할 때 큰 자산이 될 것이라 느꼈다.

종합적으로, 교환학생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들은 모두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였다. 언어적 부담, 장보기와 생활 적응, 문화적 차이 등 처음에는 힘들게 느껴졌던 문제들을 하나씩 극복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자율성,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교환학생 생활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 중 하나이며, 앞으로의 학업과 사회생활에서도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